북스

Books

논개, 사랑 때문에 죽음을 택하다

논개 김별아 지음

진주성 전투, 남강, 촉석루, 기생, 왜군 장수….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받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쉽게 논개라는 인물을 떠올릴 것이다. 기생의 신분으로 승리 자축연에서 취한 왜군 장수를 껴안고 남강으로 투신한 의녀(義女). 분명 역사 속 인물이지만 사망연도가 1593년으로 기록됐을 뿐 생년조차 남아있지 않다. 실존 인물이긴 한 것일까.

소설가 김별아씨가 2년 간의 공백 끝에 "누구나 다 아는 듯 누구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여인" 논개를 되살려놓았다. 장편소설 '논개'(전 2권)는 '미실', '영영이별 영이별'에 이은 저자의 세 번째 역사소설이다.

논개를 잘 알 수 없었던 것은 오해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문서화된 논개의 첫 기록은 '어우야담'(1621)인데, 이곳에 쓰인 "논개는 진주의 관기였다"라는 구절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생이라는 이유로 공식화되지 못한 '전설'이 돼버렸다. 여러 문헌을 뒤진 저자에 따르면 논개는 몰락한 주씨가의 자손이자 진주성 전투를 지휘하다 전사한 경상 우병사 최경회의 부실이었다.

저자는 '남한산성'(김훈), '리진'(신경숙)에 이어 가장 최근의 '천년의 왕국'(김경욱)에 이르는 한국 문학계의 역사소설 열풍을 의식하듯 또 다시 역사소설을 써야했던 이유에 대해 먼저 입을 연다. 이례적으로 책의 맨 앞에 배치된 작가의 말에서 저자는 "애초에 나는 당대의 현실에서 출구를 찾지 못했다…현실을 따라 좇는 일에 젬병인 내가 지금 쓸 수 있고 쓸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소설은 처음과 끝이 모호하다.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안고 절벽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장면에서 시작해, 바로 날아오르기 직전에서 끝난다. "날아올라,"에서 "날아오르듯,"으로.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지만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처음과 끝,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이야기의 얼개는 논개가 다섯살이던 시절부터 스무살 때까지를 시간 순으로 따라간다. 현실적 배경은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서 전쟁 종반부까지. 1권에서는 지방관리이던 최경회의 부실이 되던 열일곱살의 논개까지를, 2부에서는 그 이후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다룬다.

저자의 거침없는 입담은 생소한 조선시대 용어가 포함된 시대적 묘사와 어우러져 꽉 찬듯한 느낌을 준다. 논개 모녀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당시 형벌법 묘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을 상세히 적은 대목 등에서는 그의 박학다식함이 읽힌다.

저자는 '어우야담' 등 고문서 15권과 '장수읍지' 등 11권의 근현대 문헌 등 모두 40여권의 자료를 바탕으로 논개의 일생을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중 한 명인 '기생 논개'는 저자를 거쳐 충절보다 사랑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택한 강인한 여인으로 오롯이 되살아난다. 〈문이당·각 권 1만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中 위화의 장편소설 '형제' 3권 번역 출간

'허삼관 매혈기'(1996)로 유명한 중국 소설가 위화(余華)가 10년의 침묵을 깨고 2005년에 쓴 장편소설 '형제'(전 3권)가 번역·출간됐다.

소설은 중국에서 160만부가 팔렸고, 오는 2008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등 23개국에서 출판될 예정이다.

저자는 배다른 형제 이광두와 송강을 통해 중국의 혼란스러웠던 격변기 시대상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1권이 본능을 억압한 문화대혁명의 시대를 묘사한다면, 2·3권에서는 윤리가 전복되고 욕정만을 추구하는 만물군상의 시대를 다룬다. 희극과 비극을 넘나드는 특유의 유머러스함도 잃지 않는다.

한편, 푸른숲에서는 저자의 대표작 '허삼관 매혈기'와 '인생'(옛 제목 '살아간다는 것')의 개정판을 출간했다.

〈휴머니스트·각 권 9천800원〉

17세기 '한류' 성리학이 사무라이 뿌리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 호사카 유지 지음

한자 '士'자는 한국에서는 선비, 일본에서는 무사를 지칭한다. 두 글자를 상징하는 사물이 '붓'과 '칼'로 갈리듯 조선의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의 삶과 정신은 사뭇 달랐다.

그러나 선비와 사무라이는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똑같은 한자 '士'를 사용함으로써 중국 성리학의 영향을 함께 나눈 집단이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 무사들의 전범으로 통하는 '무사도'에서 강조하는 규범들은 조선시대 선비상과 매우 흡사하다. '무사는 부모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무사는 스스로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구절에 무사 대신 '선비'를 넣어보면 일맥 상통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한국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일문학과 교수가 저술한 '조선선비와 일본 사무라이'는 선비와 사무라이의 기원, 역사적 전개, 대표적인 인물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일 문화를 색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책이다.

조선 선비들을 지배했던 철학은 관직에 있거나 재야로 물러났을 때를 가리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반면 원래 귀인(貴人)을 경호하던 무인이었던 사무라이는 목숨을 걸고 싸운 대가로 받은 영토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을 건축한 뒤 성주가 되는 것이 평생의 목표였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무라이가 일본을 통일한 뒤 조선을 침략한 것은 당연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은 가신들에게 나눠줄 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이같은 침략성을 순화시킨 계기가 된 것은 전쟁이었다. 임진왜란 때 납치된 유학자 강항은 주자학의 이념을 일본 상류사회에 전파한다. 이를 통해 일본 사회에서는 군신간의 충의라는 개념이 뿌리내리게 된다. 목숨과 영토를 바꾸는 주종관계가 '군신간의 도리'로 바뀌면서 일본은 19세기 전까지 전쟁 없는 나라가 된다.

일본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조선의 성리학은 '한류'를 형성했다. 17세기에 조선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일본 군중들은 자작 한시(漢詩)를 고쳐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이 때문에 통신사는 일본인을 상대하는 제술관(製述官)이란 전문직을 둘 정도였다.

조선의 선비는 왕을 보좌하면서도 실정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에도시대 사무라이는 주군이나 장군에게 충언하려면 할복을 감행해야 했다. 〈김영사·9천9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살인의 창세기(전 2권)=스페인의 작가 훌리아 나바로의 두 번째 장편소설. 제2차 세계대전과 이라크전을 배경으로 성서 속 인물인 아브라함이 실존했음을 증명해줄 유물 '진흙성서' 발굴 작업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랜덤하우스·각 권 1만1천원〉

▲영남민국잔혹사=서남대학교 김욱 교수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지역주의'를 다뤘다. 선거 때 보여진 '호남몰표'로 인해 호남이 지역주의의 온상으로 여겨졌지만, 저자는 지역주의의 본질이 '영남패권주의'라고 말한다. 가상의 인물들과 대화체로 써 있어 쉽게 읽힌다. 〈개마고원·1만2천원〉

▲김신명숙의 선택='나쁜 여자가 성공한다'로 유명한 페미니스트 김신명숙씨의 새 에세이집. 사랑, 성, 외모, 결혼, 엄마 되기 등을 주제로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명쾌한 분석과 해법을 내놓는다.〈이프·1만1천원〉

▲비트겐슈타인과 히틀러=호주 철학자 킴벌리 코니시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의 원인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했다. 저자는 히틀러가 반유대주의를 갖게 된 첫 유대인이 비트겐슈타인이며, 그래서 그가 홀로코스트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린비·1만8천원〉

▲일 분 후의 삶=첫 장편소설 '파라다이스 가든'으로 민음사의 '오늘의 작가상'을 받은 권기태씨의 논픽션집. 절제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을 되찾은 12명의 감동적인 생존 기록이 담긴 실제 이야기. 공무원, 버스 운전기사, 신인 프로복서 등 평범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랜덤하우스·9천800원〉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제1회 세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으로, 광주에서 활동 중인 정유정씨의 성장소설이다. 1986년 여름 어느 날 주인공 준호는 운동권에 몸담고 있는 형에게 여권과 여비 등을 전해주기 위해 신안의 한 섬으로 떠난다. 〈비룡소·9천500원〉

▲깨끗함과 더러움=프랑스 파리5대학 조르주 비가렐로 교수의 인문서. 저자는 '청결'이라는 주제를 통해 시대 정신의 변화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과거와 현재 우리 몸과 관련된 인식과 표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돌베개·1만5천원〉

▲빌 게이츠의 인생수업=중국 작가 푸허녠은 빌 게이츠의 성공 비결을 그의 아버지에서 읽는다. 책은 빌 게이츠의 아버지 윌리엄 게이츠 2세가 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을 엮은 것이다.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현대 최고의 갑부보다 더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스트북스·1만3천원〉

▲새의 말을 듣다=중견 소설가 윤후명씨가 '가장 멀리 있는 나' 이후 6년 만에 내놓는 소설집. 저자 개인으로서는 데뷔 40주년의 의미가 있다. 자아를 찾기 위해 독도로, 헝가리로, 춘천으로 떠나는 여행이 이야기의 뼈대를 차지하고 있는 단편 소설 10편이 실려 있다. 〈문학과지성사·1만원〉